

2023. 3. 28.(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3월 27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

도시공간기획담당관	김창규	2133-7640
-----------	-----	-----------

도시공간전략팀장	박태욱	2133-7610
----------	-----	-----------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3매

담당자	김윤경	2133-7611
-----	-----	-----------

서울시, '그레이트 한강' 청사진 구체화.. 시민을 위한 수변공간 착수

- 한강 전 구간을 다양한 시민 여가생활 가능하도록 수변 특성 살린 공간모델 마련
- '24년까지 시범사업 3개 대상지 발굴, 도시경쟁력 성장시킬 공간기획 구체화
- 서울권 한강의 지천·소하천 전역에서 누구나 수변 생활 향유 할 수 있는 기회 확대

- 서울시는 한강 수변공간을 도시 속 쉼터, 문화 예술 중심의 시민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미래 한강의 구체적 공간기획 및 세부 실행전략 청사진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.
- 지난 9일 발표한 '그레이트 한강'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주요 사업과 한강변을 연속성 있는 공간으로 연결하고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해 잠재된 한강의 변화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다.
- 우선, 41km가 넘는 한강 변의 주요 사업 부지와 한강 전 구간에 시민 일상과 밀접한 여가 기능을 조사할 예정이다. 여기에 다양한 한강의 수변 공간을 유형화하여 시민의 삶과 한강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고려한다.
- 서울시 구간의 한강은 11개 자치구에 걸쳐 있으며 수변마다 다양한 치수 특성과 공간적 조건을 갖고 있어 다채로운 공간 조성이 가능하다.

- 본 사업과 연계가 필요하거나 개선이 시급한 저이용 부지 등을 3개소 내외로 발굴하여 접근성 개선 및 이수·치수 특성 활용 등 안전한 공간 조성을 위한 촘촘한 실행전략도 구상한다.
 - 한강 주변의 공간 특화는 노후화된 한강공원의 환경개선과 시민 여가 및 한강 변 축제 등 사계절을 쾌적한 한강에서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도록 시민 밀착형 수변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.
- 특히, ‘그레이트 한강’ 프로젝트에서 제시된 4대 핵심전략(자연과 공존하는 한강·이동이 편리한 한강·매력이 가득한 한강·활력을 더하는 한강)을 바탕으로 한강의 방재 기능과 수변의 혁신적인 재해석을 통해 미래 한강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한다.
- 유형별 구체적인 공간기획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발굴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동력으로 점차 적용 대상지를 확장해나갈 방침이다. 단계별로 추진하는 다양한 공간모델 구축과 지속적인 시범사업은 혁신적인 한강 르네상스 2.0을 완성하는 밑그림이 될 것이다.
- 성공적인 한강의 변화가 서울시 332km 지천까지 확장되면 국제적인 면모를 갖춘 수변공간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.
- 서울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수변을 중심으로 한 도시공간 재편과 시민 일상의 활력을 계속해서 강조했다.
 - 본 용역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각 수변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여가 공간 유형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한강과 4대 지천(안양천·중랑천·탄천·홍제천) 및 소하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.

서울 하천현황(법정)

하천법 (개소 / 연장)	한강	1 / 40km
	권역하천	4 / 55km
	지류하천	38 / 159km
소하천정비법	소하천	18 / 22km



동네중심_ 소하천 · 지류	지역중심_ 4대지천	도시중심_ 한강
일상 속 수변공간 발굴	수변 여가공간(쉼터) 특성화	한강 수변문화 네트워크 구축

〈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 중 ‘수변 중심 공간 재편’〉

- 서울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「한강 수변 공간기획 및 세부실행 전략 마련」 용역에 대한 사전규격 공개(입찰공고 전 구매규격 사전 공개)를 3월 28일부터 실시한 후 입찰공고 할 계획이다.
 - 용역명은 「한강 수변 공간기획 및 세부실행 전략 마련」 이며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, 예산은 795백만 원이다.
- 흥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“서울시민이 찾아야 세계인이 찾는다는 생각으로 일상 중심의 구체적인 공간기획을 통해 누구나, 어디에서나 한강 수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”라는 의지를 보였다.